

ㄹ 양심을 버리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그는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가?

삼11:1-17

공지한 대로 2달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유지하기' 시리즈 설교

지난 주,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인 법을 따르는지 여부를 의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서려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지 정확히 의식해야 한다.

이런 의식 즉 깨끗하고 투명한 양심은 성경 말씀과 교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 성경의 위대한 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수를 그대로 보여 준다. 아브라함, 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한다.

모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는 심지어 사람을 죽임

이런 일을 하면서 둘 다 양심이 크게 찢렸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기록할까?

우리가 인간임을 상기시켜 주려고, 롬15:4

누구나 양심의 경고를 위배하면서 산다. 수치, 죄의식, 남 탓

그러고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양심이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한다.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의 죄와 실수를 통해 보여 주려는 것은 이것들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인간이 아닌 인간 위선자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양심을 얼마나 위배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양심 시리즈를 통해 내가 보여 주려는 핵심

아무리 우리의 죄가 커도, 제대로 모두에게 회개하지 못 했어도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눅23장의 강도를 용서하듯

오늘 < >, 다윗은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아마 가장 크게 양심을 저버리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데 그는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았을까?

다윗의 양심

17-18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됨, 그때부터 실제 왕이 되는 30살까지 죽을 고생을 한다.

특히 자기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백방의 노력을 한다.

그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죽을 고생

도망 다니다가 광야에서 두 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를 가짐(삼상24, 26장).

그러나 실행하지 못함, 그의 양심이 도저히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음, 삼상24:4-5

시간이 지나 왕이 됨, 주변의 원수들을 정복함, 모든 일이 평안하게 진행됨

삼하11장, 군대와 장수들이 암문과 싸우려 간 사이에 쉬다가 목욕하는 밋세바를 보게 됨(2)

알아보니 자기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3)

강제로 그녀를 데려다가 함께 누움(4), 여인 임신(5)

전쟁터에서 우리야를 데려와 그녀와 눕게 하려 함(6-8)

그러나 오히려 우리야는 충성심을 보이고 그리하지 않음(11)

다윗의 걱정, 드디어 살인을하기로 결심함

우리야의 손에 그를 죽이려는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냄(14)

요압이 이를 실행함(15-17)

밋세바의 애곡(26), 그녀를 궁으로 데려옴(27), 아들 출산

그러나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심(27)

우리의 질문: 밋세바와 간음, 우리야 살인, 강제로 그녀를 취함, 다윗의 양심은 어디로 갔을까?

광야의 다윗 사건, 밋세바 사건,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람을 묘사한다고 생각하기란 거의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한 사람을 묘사한다.

우리를 보라. 어떤 때에는 양심이 민감하지만 어떤 때에는 둔감하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다.

중요한 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부드러운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동굴의 다윗: 쫓겨 다니는 상태, 굶주린 상태, 핍절한 상태, 도망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매일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한다.

왕궁의 다윗: 성공함, 매사가 형통함, 존경을 받음, 요리사, 병사, 여인들, 자기의 모든 요구를 채울 수 있다. 그 결과: 절실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힘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는 성공과 번영의 함정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그를 제어하는 양심의 힘이 약해지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우리는 동굴의 다윗과 왕궁의 다윗으로부터 철저히 배워야 한다.

같은 사람의 양심이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제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윗의 죄와 양심이 둔감하게 되는 과정

다윗은 음욕의 죄를 지었다. 그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현시대 많은 사람들의 죄

왜? 그는 왕이라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

1. 밋세바를 보고 음욕, 남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잊었다(출20:17, 10번째 명령).
2. 밋세바와 함께 누우면서 밋세바의 남편인 우리야의 권리와 그의 필요를 잊었다.
3.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진실을 직시하는 정직함을 잊었다. 그리고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덮어 썼다.
4. 우리야를 데려와 모든 것을 덮으려 하였으나 그가 자기 의도대로 하지 않자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다.
5. 한 개의 거짓 위에 계속해서 거짓이 쌓여갔다. 죄의 거미줄이 점점 더 강하게 그를 묶기 시작하였다. 이런 악한 음모는 스스로 생명체가 되어 다윗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 그는 이런 최악의 음모의 종이가 되고 말았다.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6. 그의 마음과 양심은 어둠으로 뒤덮였다.
7.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다윗의 양심 회복과 죄들의 용서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 그의 양심이 작동하였다. 그는 어떻게 구출을 받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다윗을 구출하시려고 나단 대언자를 보내심, 삼하12 나단의 비유(1-4)

다윗의 분노(5-6),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양심에 남아 있던 정의감이 진실을 피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악한 자는 죽여야 한다(5). 4배로 갚아야 한다(6). 그는 그 무기력한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7). 나단의 말, 비수처럼 그의 양심을 파고들었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찌르자 그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러자 곧바로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할 말을 잊었다. 답을 못하였다.

밋세바 목구멍을 조이는 듯한 느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그제야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바로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13)

말씀을 통해 다윗의 양심이 찢려서 그가 죄를 깊이 뉘우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마귀가 그의 욕망을 이용하여 그를 손아귀에 꽂 쥐고 있어서 그는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를 벗어나게 해 준 것은 진실이었다. 즉 진실을 인정하고 진실에 굴복하는 것

요8:32

나단은 잔인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방종과 무절제를 철저히 부수어버렸다.

나단은 진실에 호소함으로써 다윗의 거짓 확신을 부술 수 있었다.

그제야 다윗은 자기가 괴물인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13)

시편 51편은 이 일을 겪으면서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여 준다(6, 17).

다윗은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여기에 도취되는 것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나단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행13:22)

물론 다윗은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 문제 해결에는 언제나 그의 친구 나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때마다 등장한다.

1. 왕이 된 뒤 그의 마음속에 생긴 갈망: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겠다. 삼하 7장

다윗은 자기 친구 나단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였다. “너는 책임자가 아니다. 네 아들이 짓는다.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온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함

2. 밋세바 사건: 나단 대언자의 혹독한 책망, 나단도 다윗의 악한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3. 그 뒤 나단은 어떤 일을 하였을까?

다윗이 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통회하며 자복하였으나 그 아들이 죽음. 그 뒤 여호와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주의 명령으로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나단 대언자였다(삼하 12:25).

4.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 힘이 약해지자 그의 아들 아도니야가 음모를 꾸며 솔로몬의 왕권을 빼앗고 그와 그의 어머니 밋세바를 죽이려 함(왕상1)

이때 나단이 다윗 왕 앞에 등장해서 밋세바와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였다.

5. 나단은 다윗에게 실상은 그리 즐거운 대언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나단은 필요한 때에 다윗에게 쓴 소리를 해 준 대언자였다. 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친구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 나단은 다윗이 왕이든 아니든 자신과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다. 그래서 나단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

6.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은 대언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전한 대언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홀연히 사명의 길을 걸어간 대언자 나단이 있었기에 인간이어서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결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요17:4)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려는 욕구가 생긴다. 양심이 부드러워진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양심을 저버리며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개입: 성도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 나단을 보내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13), 회개 죄들의 용서
신약 시대 성도들도 양심의 회복, 수치와 과거의 문제 회복해야 한다.

상담, 책, 다 좋지만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나단처럼 진실을 말해 주는 형제자매를 만나야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날 수 있다.

진실한 교제, 충고, 쓴 말

이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의 고백,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의 용서 확신, 개인과 가정의 삶 단순하게 정리,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시32:1-2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으며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이 없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시32:1-2).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